

동네서점은 멸종하는가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 서점 공세

광주 10여년새 절반가량 폐업

대부분 참고서 판매소로 전락

문화 공간화 등 정부 지원 절실

■ 전국 서점수

연도	전국	광주	전남
2003	2247	204	110
2005	2103	204	102
2007	2042	169	96
2009	1825	162	87

(제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동네서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책 유통의 실태와 같은 동네 서점의 고사 위기는 2000년 초 인터넷서점 등장 이후 심화된 현상이지만 최근 중소서점들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더 커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가 최근 공개한 '전국 서점 수 통계'에 따르면 1997년 5407곳에 달했던 서점은 2001년 2646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07년에는 2042곳, 2009년에는 1825곳으로 감소했다. 12년간 3곳 중 2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 통계는 한국서련이 1997년부터 격년으로 전국의 서점 수를 집계한 것이며 문구류 등 책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서점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중소서점들의 고사 위기는 특히 지역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997년 300여곳에 이르던 서점 수가 2003년 204곳, 2009년 162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전남도 2003년 110곳이던 것이 2009년에는 87곳으로 줄었다.

광주 치평동에서 중소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허모씨는 "현재 서점들 대부분이 참고서나 아동 도서를 판매해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실정"이라며 "정상적인 서점 역할을 못하고 참고서 판매소 정도로 전락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서점들이 이렇게 된 데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 인터넷서점의 등장으로 위기가 왔고, 최근 들어서는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의 공격적 마케팅과 당일배송 서비스 확대로 어

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들은 3년 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최근 지방으로 서비스를 알다워 확대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당일배송 서비스를 지난달 부산·대구·창원·천안에 이어 이달부터는 전주까지 확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예스24와 인터넷24도 최근 광주 등지로 당일배송 지역을 늘렸다.

이에 맞서 중소서점들은 최근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서련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중소 서점을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모델서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울산·충주·대전 등 총 5곳의 지역 서점을 모델서점으로 선정, 저자와의 대화, 독서 토론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에도 3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책으로 지역 중소서점의 고사 위기를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 우선 선정하는 모델서점 수가 적고 지역도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중남 광주서점조합 조합장은 "광주도 몇몇 서점이 모델 서점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채택된 서점 수가 적어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서점의 공세 등으로 중소서점들이 고사할 위기에 대항할 대안을 찾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서련 관계자는 "동네서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점 업계가 총체적인 난국"이라



지역 서점들이 불황의 여파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활문화공간으로의 활로 모색과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대책이 절실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며 "기초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활로 모색과 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몸짓의 향연 광주무용제

19일 문예회관... 10월 광주서 열리는 전국대회 참가작 선정

오는 10월21~30일까지 광주에서 대규모 무용축제가 열린다.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제 19회 전국무용제는 전국 무용인들의 가장 큰 축제다.

전국무용제 광주 대표팀을 선정하는 광주무용제가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정혜경)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광주현대무용단 등 5개 단체가 참가, 경합을 벌인다.

광주현대무용단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 남녀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Blending'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무용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유길호씨가 안무를 맡았다.

배강원무용단은 고전 '춘향전' 속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달콤한 인생'을 선보인다. 배씨는 안무를 직접 짰고 주역으로도 출연하며 송재욱·신성철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소현무용단의 'Thirty-앞에서'는

30살 문턱에 선 여자들의 이야기를 현대적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이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공진희씨가 안무를 맡은 '세번째 박'을 무대에 올린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벽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김솔·김차연·김보라·문지선씨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채훈화무용단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삶을 다양한 빛으로 표현한 '빛, Bright on my mind'를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 향기의 번짐 문명호 전 17~23일 신세계갤러리

맨드라미·장미·매화·카라·동백까지. 화면 가득 화사한 꽃들이 가득하다. 눈부시다. 향기로운 내음이 풍겨올듯 해 코끝을 대어 보고 싶어진다.

서양화가 문명호씨가 '꽃의 향기'를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17일~23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어찌보면 꽃그림은 많은 사람이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소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랫동안 '꽃' 그림에 전착해온 문씨는 더 많은 수고로움으로 새로운 모습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전시작에서는 변화가 보인다. 무엇보다, 색 번짐 효과를 적절히 활용한 꽃그림은 화쪽에 온전히 스며들어 오히려 화려함이 돋보인다. 여유가 없는 화면은 질리기 십상이다. 면과 면의 경계를 허물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색감으로 표현한 '맨드라미'와 '카라' 등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조선대를 졸업한 문씨는 광주예술문화사 등을 수상했으며 '새천년 1000인전' 등 다양한 전시회에 출품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5일부터 7월1일까지 서울시



'장미빛'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도 열린다. 문의 062-360-16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에서 빛으로' 예술을 만나다

한국미용박물관 16일부터 낙죽장 김기찬 명인 초대전

16일은 창포에 머리 감는 단오날. 우리네 할머니들이 곁에 두고 사용했던 얼레빗과 비녀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관람객들을 만나는 전시물들은 단순한 빗과 비녀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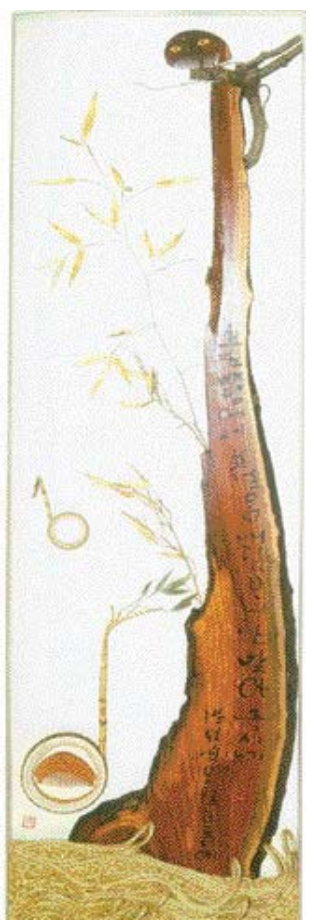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한국미용박물관(관장 이순)은 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으로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31호 낙죽장 김기찬 명인 초대 전시회를 개최한다.

낙죽(烙竹)은 인두를 대나무나 나무에 지져서 무늬·그림·글씨를 그려 새기는 전통적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선조들은 얼레빗과 비녀 등에 그림을 새겨 넣

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려한 그림을 새겨 넣은 얼레빗과 비녀를 비롯해 대나무, 나무 뿌리, 수석 등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 김승혁·유진씨 등 전수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김씨는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지난 1978년 송광사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하며 전남 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85년 전남공예대전에 빗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하며 얼레빗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낙죽장 얼레빗 기능전수자로 인정받았고 지금은 보성 서재필기념공원에 자신의 호를 딴 '계심헌'을 열고 후배 양성과 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문의 062-514-6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묵은웃을 벗고 새웃을 입다'

2010여름바캉스제주도상품(주장홍혜운여객선장흥~제주취항)

관매기간 7월16일~8월28일

장흥(노획항) ↔ 제주(성신포) 땀~다! 1시간 40분!

배리카로델 2인1실	₩ 399,000
배리카로델 4인1실	₩ 489,000
배리카로델 6인1실	₩ 579,000
배리카로델 8인1실	₩ 669,000

※ 포함사항: 배차 선요금, 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2인1실 포함, 배차기차요금

배리카로 떠나는 제주 1박2일 글루투어 ₩ 279,000

- ▶ 코스: 배차기차요금, 2인1실,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 ▶ 포함사항: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 ▶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리카로 떠나는 제주 2박3일 자유여행 ₩ 209,000

- ▶ 배차기차요금 ₩ 209,000
- ▶ 배차기차요금 ₩ 229,000
- ▶ 포함사항: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가족과 함께 떠나는 2박3일 제주패키지여행 ₩ 178,000

- ▶ 배차기차요금 ₩ 178,000
- ▶ 배차기차요금 ₩ 210,000
- ▶ 포함사항: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배차기차요금

문의: (주)주어항공 T.062-382-8201 | 배차기차요금: ₩100,000 | 배차기차요금: ₩100,000